

# “절이 게임보다 더 좋아요”

## 눈길 끄는 사찰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현혹하는 놀거리와 볼거리가 범람하는 시대, 어린이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찰들이 고심에 고심을 더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차별화에 성공한 사찰도 눈에 띈다. 어린이 불자의 흥미를 끌고 동참을 유도하는 ‘절’ 사찰들은 어디에 어디가 있을까.

풍물·영어회화·연극·다도·염색·요리 등 어린이 흥미 끝만한 다채로운 강좌 진행 경쟁에 익숙한 아이들의 심성 개발에 초점

**# 금장사, 다음달 방과후 교실 개원**  
“And sebastian was his name~♪” “와~ 왕자님이다. 왕자님 이름이 세바스찬이래.”

서울 금장사(주지 분각) 약사전 1층에 마련된 공부방. 2학기부터 시작될 어린이 교사의 영어교실 개원을 앞두고 아이들의 영어수준을 가늠하는 테스트가 열렸다.

아이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인형극에 빠져들어 선생님과 함께 영어로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친다. 이제 흥은동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TV프로그램에 빠지는 대신 즐겁게 공부를 하며 방학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9월초부터 개원할 금장사 ‘보리 방과후 교실’에서 미리 공부를 시작한 지역아동들이다.

주지 분각 스님의 서원으로 세워진 ‘보리 방과후 공부방’은 사찰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공부방이다. 반 이름도 ‘문수’ ‘보현’ 반으로 지어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마음과 보현보살처럼 착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배움터’가 되길 꿈꾸고 있다.

분각 스님은 “지역 주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 편안한 공부방”이 되길 서원한다. 그래서 공부방도 보육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 부모님이 일터에 있는 동안에도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이들이 다양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9월 초 개원식과 함께 열리는 방과후 공부방은 주중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과학, 체육, 국악, 풍물, 서예, 요가, 다도, 단소, 영어회화 등



서울 법원사가 둘째·넷째주 운영하는 법원 축구 교실. 사진제공=법원사

### # 매주 토요일 ‘학원’으로 변신

포항 죽림사(주지 종민)는 어린이법회가 열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학원’으로 변신한다.

풍물반과 음악반, 영어회화반, 다도반, 서예반, 요가반, 호신술반 등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강좌가 열리기 때문이다. 1부 어린이법회가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이들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가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지역 아동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아동들을 가르치는 특별강사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교사진이다.

주지 종민 스님은 “2003년부터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위해 무료강좌를 시작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절



서울 흥은동 금장사가 9월부터 운영하는 ‘보리 방과후 교실’에 참여할 지역 어린이들이 영어 연극을 보며 테스트를 받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신도들과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053)247-4688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가 ‘놀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흥법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하는 놀토 체험프로그램 ‘숲속의 놀토학교’는 영어연극, 과학, 원예, 독서토론, 종이접기, 염색, 요리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다양한 교실로 인기를 끌었다.

2학기에는 피구, 축구, 농구, 선무도, 스포츠댄스 등의 체육교실과 동화연구교실도 새로 생기고 유아들을 위한 숲체험, 가을단풍제, 발우공양, 템플스테이 등의 비정규 프로그램도 개설될 예정이다.

8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해 9월 9일부터 2학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51)500-0345

### # 영어도 익히고 연극도 하고

이외에도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심화해 ‘힐’을 준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들도 있다. 매년 운영하는 ‘영어교실’로 유명한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올해 영어교실과 연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올해 9월 10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운영될 ‘영어 뮤지컬과 영어 연극놀이를 통한 참나 찾기’가 바로 그것이다. 문화예술 전문교육기관인 ‘아트컴퍼니 교화’와 손잡고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뮤지컬과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또 극본과 안무 등을 지도강사의 교육 아래 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심성개발도 이루어지도록 ‘참나 찾기’에 초점을 맞췄다.

원혜 스님은 “경쟁 속도 시기 질투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의 감성에 재미와 상상력을 불어넣어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불자 청소년으로 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연극과 뮤지컬 수업이 끝나면 학부모와 일반인 앞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희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511-6070

### # 전문가에게 축구 배우요

서울 법원사(주지 보경)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법원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고 있다.

“축구를 통한 부처님 마음 배우기”를 목표로 진행되는 ‘법원 어린이 축구교실’은 김정섭 경희대 체육학과 강사가 지도를 맡아 현재 40여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다. (02)733-5322

해남 대흥사(주지 문산)는 8월 2~9일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를 열었다.

다도아카데미는 ‘차(茶)’로 유명한 대흥사 주변 차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차의 역사도 배우고, 차를 직접 수확해 비비고 뒤는 제다체험도 하면서 다도예절을 배우는 차 종합체험 프로그램.

이와 함께 새벽술길과 108참회, 참선, 사경 프로그램도 접목해 아이들이 다도는 물론이고 불교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렸다. (061)534-5502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서울 영화사 어린이법회

서울 영화사(주지 평중)는, 매주 ‘설법-찬불가-율동-간식’ 순서를 반복하는 흥한 어린이법회와는 달리, 지도교사들의 열정으로 뽕뽕 문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이름 높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에 열리는 어린이법회는 1982년에 시작된 이후로 벌써 24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언제나 새롭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법회에 등록된 어린이불자는 150여명. 그 중에서도 50~60명의 아이들이 매주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석한 아이들이 모은 ‘쿠폰’으로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좌편을 벌리는 행사다.

영화사 어린이법회는 해마다 색다른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는 것으로도 이름이 높다. 2002년부터는 ‘특색 있는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자’는 뜻을 세워 해마다 다른 테마로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육바라밀 구슬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진행됐던 올해 여름불교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육바라밀 구슬’을 찾는 탐방단을 꾸려 속도유희를 도는 체험을

## 기발한 아이디어 ‘반짝 반짝’

해마다 다른 테마의 여름불교학교도 호응 커

잘 된다는 사실 어린이법회가 20~30여명의 아이들만이 온다는 요즘 어린이 법회 실정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숫자다.

비결은 무



서울 영화사는 매년 특별한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끌어 모은다.

엇보다 지도교사들의 열정. 6명의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 치열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새로운 법회 프로그램을 만든다.

기획회의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구상, 실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새로운 교구 개발과 제작까지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온다.

학년별 담임선생님은 물론, 어린이법회 전체진행을 총괄 담당하는 교사가 한 명, 어린이법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한 명씩 따로 배치되었다.

보통 어린이법회 전담 교사가 따로 배치되지 않는 어느 사찰 현실을 비추어 보면 과격적인 숫자다.

이들은 한 달 단위로 운영되는 4주 프로그램을 매달 초에 계획한다. 매달 첫째 주에는 사단법인 ‘동림’에서 발행하는 ‘연꽃지’를 활용해 지도법사 스님의 시정각 설법이 열린다. 둘째 주에는 수화교실, 풍물교실, 즐거운 운동교실 등 다양한 특별활동 교실을, 셋째 주에는 생일법회를 진행한다. 넷째 주 열리는 ‘시장법회’는 영화사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영화사만의 이색 법회. 한 달 동안 영화사 어린이법회에

통해 자연스럽게 팔정도 유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타 사찰에서도 여름 불교학교 프로그램 열풍이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인천 보림사 등에서 교육을 펼치기도 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놀이 도구도 지도교사들이 직접 제작한다. 그림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부처님 일생을 배울 수 있는 ‘팔상성도 카드’, ‘어린 전각에서 어떤 수행방법으로 성불했는지’를 맞추는 사건추적보드게임 ‘블루(Clue)’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반짝인다.

10년째 영화사 어린이법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중훈 총괄지도교사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배우고 심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 없이 고민하고 실험을 거듭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도교사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회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주지 평중 스님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기도 하다.

평중 스님은 “어린이포교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린 불자를 키울 지도교사 층을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2)444-4321 이은비 기자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드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 전문과정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6. 9. 6 (수·목요일 주간반)
- 토·일요일: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이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온과 월온은 물론 일온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 사암침술학회

•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

### 전자식 2중문 3중정보 특헌 불전함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범상

## 서원불교

043-647-2378, 011-467-1472

##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운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ak.com

###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2. 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6년 9월 6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계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 입 학 금	90,000원 (3개월)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사무국 ☎ (02)732-1206~8

##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